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아시아 국가, 일용소비재(FMCG) 전자상거래 비중 압도



이슈페이퍼

- 식품 안전투명성 제고 위해 공급사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



해외 현지 리포트

1. 머스크의 온라인 예약 선적 시스템 소개 및 시사점
2. 인도의 FTWZ 현황 및 활성화 방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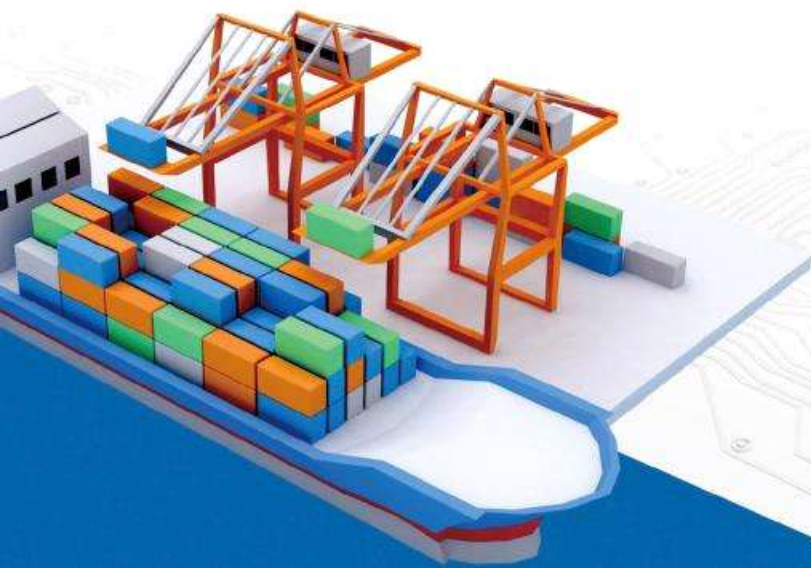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터키 전자상거래 시장, 지난해 38% 성장
2. 일본 DENSO, 신형 리퍼 컨테이너 개발 통해 콜드체인 분야 진출

명사 스피치

“국내 물류산업이 현재 아시아 유통 허브로 급성장하는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. 물류산업의 성장과 물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기업, 투자자, 고객 모두가 고민해야할 부분도 늘어나고 있다. 개발사 및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상생하고 더 나아가 국내 물류산업이 선진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.”

우정하 JLL코리아 이사
(2019. 5. 31. / 물류신문 인터뷰 기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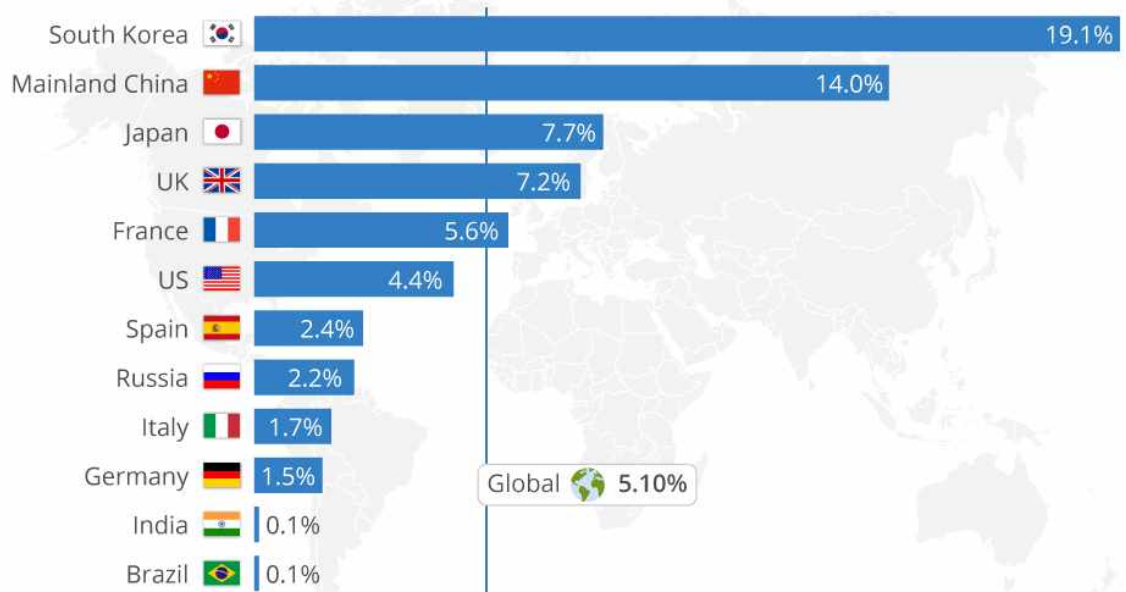
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아시아 국가, 일용소비재(FMCG) 전자상거래 비중 압도

2018년 국가별 총 FMCG 시장의 전자상거래 점유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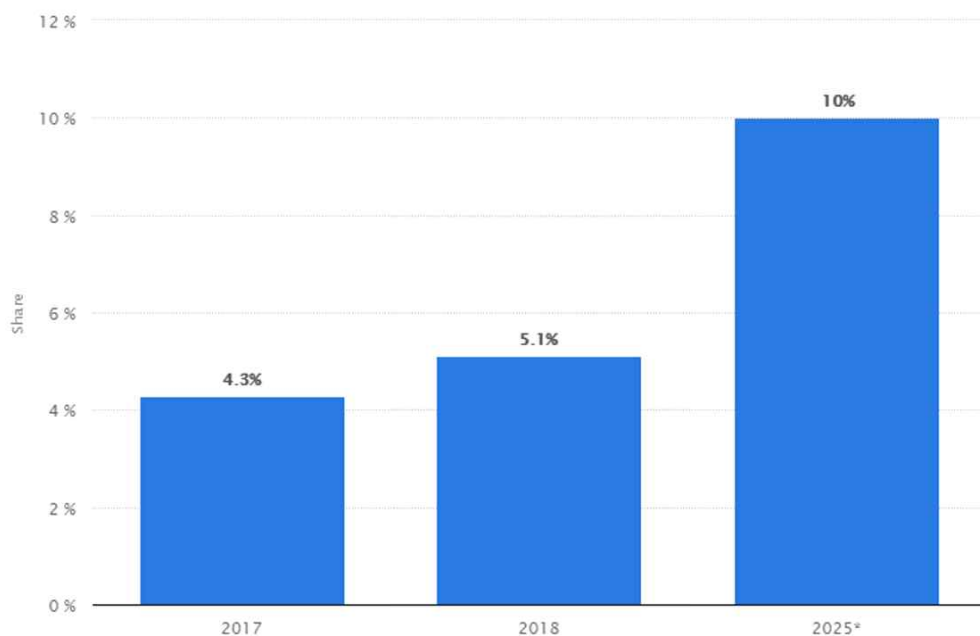
@StatistaCharts

* FMCG = Fast-moving consumer goods; excluding fresh produce
Sources: Kantar Worldpanel, GfK, Intage

statista

자료: www.statista.com

2017~2025년 전 세계 FMCG 시장의 전자상거래 점유율



자료: www.statista.com



- 2025년까지 전 세계 FMCG(Fast-moving consumer goods; excluding fresh produce) 시장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전 세계 FMCG 시장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2017년 4.3%에서 2018년 5.1%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10%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2018년 FMCG 시장의 전자상거래 점유율은 한국 19.1%, 중국 14.0%, 일본 7.7%로 미국 및 유럽 시장을 압도하고 있음
 -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
 - 한국은 총 FMCG 판매의 19.1%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
 - 일본과 영국의 경우 2018년 7.7%와 7.2%의 점유율을 보였음
- 참고자료: www.statista.com, "Asian Markets Lead Transition to Online FMCG Sales" / www.statista.com, "Online share of the global FMCG market worldwide from 2017 to 2025" / <https://us.kantar.com>, "China's online sales of FMCG will double by 2025"

권보배 전문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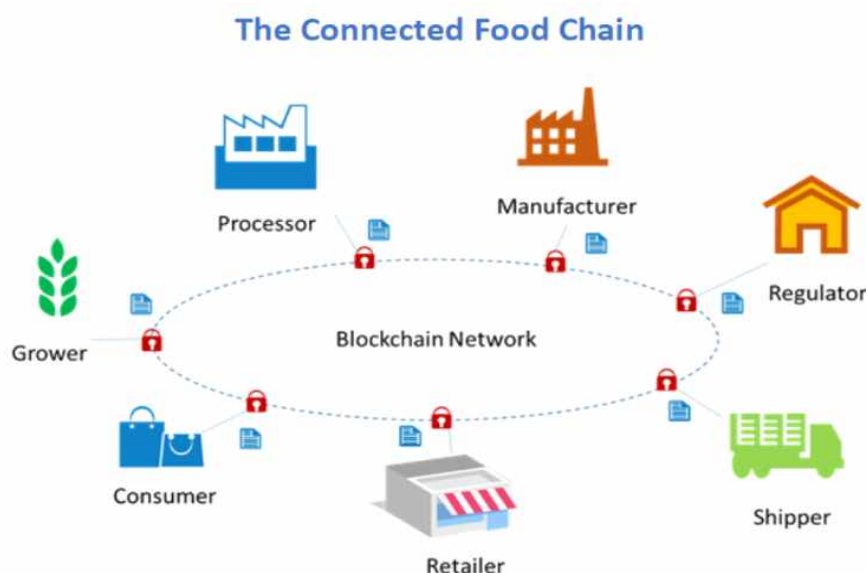
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

이슈페이퍼

식품 안전투명성 제고 위해 공급사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확대

- 최근 미국 냉동 베리·쇠고기 리콜(recall) 사태로 인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
 - 연방 식품의약청(FDA)은 지난 11일 A형 감염 바이러스 오염이 의심되는 LA, 샌디에고, 캘리포니아, 하와이 소재 코스트코(Costco) 냉동 베리류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고, 코스트코는 고객에게 상품의 리턴 또는 환불을 권고하고 있음
 - 또한 지난 4월, 미국에서는 대장균에 오염된 쇠고기로 인해 15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에 육류 가공업체인 K2D Foods는 10개 주에서 쇠고기 10만 파운드 이상을 회수함
-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라클(Oracle), IBM 등은 식품공급사슬 상의 안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, 블록체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식품추적 서비스를 개발·운영함
 -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Oracle Retail Brand Compliance Management Cloud Service는 소매업체, 식품서비스 제공업체, 제조업체가 상품의 생산부터 개발,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
 - 오라클의 시스템은 식품공급사슬 전반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규제 및 산업 정책 등도 반영하므로 이슈에 대해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
 - IBM은 블록체인기술을 식품공급사슬에 적용하해 Food Trust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·신선도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적임

블록체인 기반 식품공급사슬(Food Chain) 개념도



자료 : <https://www.foodlogistics.com/safety/blog/21070106/food-safety-traceability-and-transparency-by-way-of-blockchain> (검색일: 2019년 6월 18일)



- 대형 소매업체인 까르푸(Carrefour)는 IBM과 협업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추적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현재 육류, 우유, 과일류를 대상으로 운영 중임
 - 현재 까르푸는 육류, 우유, 과일류를 대상으로 농장에서 매장까지의 공급망 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
 - 고객은 핸드폰으로 QR 바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상품의 수확일, 생산지, 생산자 정보, 제조 과정, 제조장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
 - 까르푸는 식품 뿐 아니라 비 식품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하며 궁극적으로는 QR 코드 없이 상품추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

■ 참고자료 : www.foodlogistics.com, 2019.6.18.

조지성 전문연구원

051-797-4916, jisungjo@kmi.re.kr

해외 현지 리포트

머스크의 온라인 예약 선적 시스템 소개 및 시사점

- 머스크는 2015년 6월 Online Booking System 도입을 발표함
 - 기존 booking 업무를 대행하던 1급 대리점 업무와 병행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2017년 12월 초 전면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
 - 해당 booking 시스템은 누구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머스크가 운영하는 선박의 운임 및 스케줄 조회가 가능함
 - 이를 통해 화주들은 스케줄 및 운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으며, 현재는 APP 버전 출시로 더욱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음

Maersk Shipment APP을 활용한 온라인 예약 프로세스

① 화물운송 구간 입력

② 컨테이너 type 및 G/W 입력

③ 화물정보 입력

④ 회사정보 입력

자료 : Maersk Shipment APP 활용



- 해당 서비스는 화주가 직접 해상 운임 확인 및 선적 예약이 가능함에 따라 통관 및 운송서비스 제공 기업 단독으로 수출 업무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포워더가 배제되는 것이 주요 특징임
 - 기존의 선적 업무는 포워더가 직접 선사가 지정한 대리점으로부터 운임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화주사에게 해당 견적을 전달하는 구조가 대표적임
 - 이러한 구조에서 온라인 기반 선적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구간별 운임조회, 선박의 상태 및 스케줄, 화물 도착 여부 등 선적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 조회가 가능함
 - 또한 입력 정보의 오류 발생 시 오류의 발생 사유 및 문의사항에 대한 실시간 화신이 가능한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
- 중국 물류시장 내 대기업 물류사들은 대부분 포워더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온라인 부킹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는 높다고 할 수 없지만 향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
 - 중국 물류시장 내 중국 발 수출화물의 경우 COSCO와 머스크가 해당 시장 점유율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실제 매년 사용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
 - 다수의 포워더 및 화주사는 기존 대리점을 통한 업무에 익숙해져 있어 단기간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
 - 그럼에도 주요 선사가 주도하는 컨테이너 운송시장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음

■ 참고자료 : http://www.ship.sh/news_detail.php?nid=27944/ 2019.06.17

Carrycon Shipping 이정주 팀장

+86-182-1756-3742, dlwjdown1267@hanmail.net

인도의 FTWZ 현황 및 활성화 방안

- 인도 정부는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(SEZ, Special Economic Zone) 내 FTWZ (Free Trade Warehouse Zone)를 특수 카테고리로 지정함
 - 인도에서는 뭄바이, 첸나이, 구자라트, 웨스트 벵갈 등 전국 6개 주요 항만에 FTWZ를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음
 - 델리지역의 경우 FTWZ는 노이다 인근 KHURAJ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내륙기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, 완벽한 통합시스템을 갖춘 곳은 남인도(CHENNAI)와 서인도(MUMBAI)에 위치하고 있음
 - FTWZ는 '국외영토'로 분류되어 각종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, 모든 서비스는 외국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물류센터 기능을 위한 다양한 제도 지원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음
 - FTWZ 개발은 100% FDI가 가능하고, 개발된 FTWZ는 인도정부의 승인을 받은 물류업체와 기업에게 재분양이 가능함

인도 델리지역의 서인도 및 남인도 철도 수송 개략도



자료 : LOM 내부 자료

- FTWZ는 비용절감 혜택, 통합물류서비스 및 ONE STOP 통관서비스 제공, 전시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음
 - FTWZ 구역 내에서는 서비스세 및 소득세 면제, 관세이연 효과¹⁾, 항만에서 CFS 경유 없이 FTWZ로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함
 - 해외에서 수입 또는 인도 국내에서 반입해 부가서비스 후 재수출 또는 인도 국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만과 연계해 두바이, 싱가포르 등 제3국 수출 중계물류허브로 활용 가능함

1) 최대 5년 동안 통관없이 보관 가능하고, 보관 기간 동안 관세 부담금이 없음

FTWZ의 장점

FREE TRADE WAREHOUSE ZONE 장점



자료 : LOM 내부 자료

- 일반 수입 시 통관은 5단계로 이루어지나 FTWZ 수입수출통관은 2단계로 통관절차가 간단함
- FTWZ를 이용해 박람회 참석 시 Carnet(무관세 임시통관증서)²⁾가 불필요하고, 최장 120일간 임시반출 허가 및 인도 내 어떠한 박람회 참석도 가능하며, 전시회 종료 후 한국으로 재반입 대신 FTWZ 내에 보관 후(최대 5년) 매각이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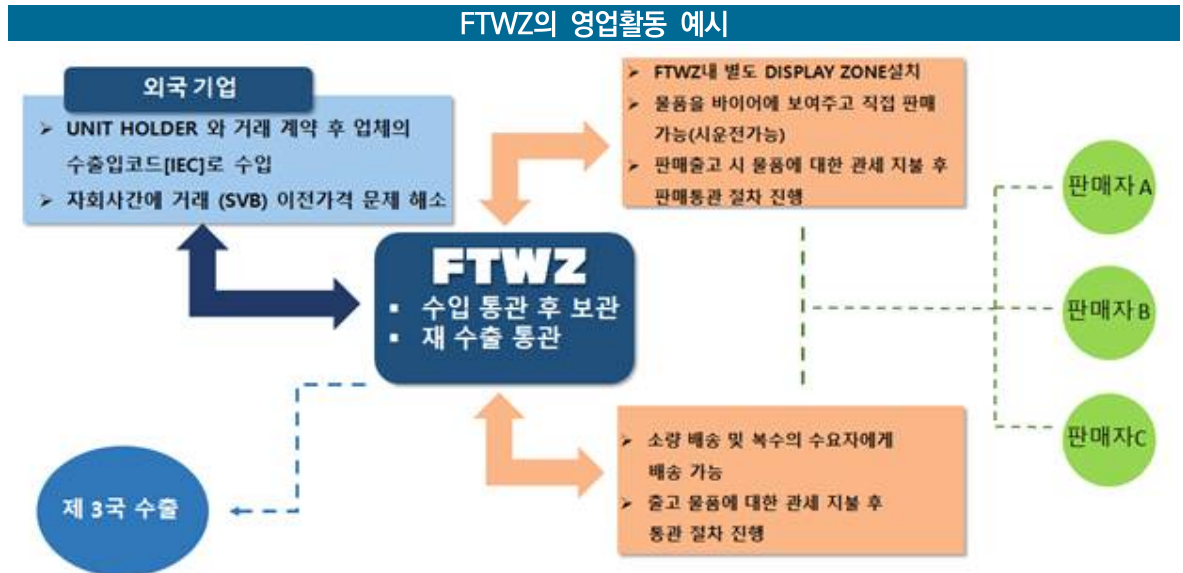
FTWZ의 통관절차 간소화



자료 : LOM 내부 자료

- 그리고 별도 인도법인 설립 없이 국내 판매, 제3국 수출 등 다양한 영업활동이 가능함

2) 일반적으로 화물은 Carnet를 통해 수입되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치고, 지정된 전시회만 참가 가능하며 재 반출 시에도 복잡한 통관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



자료 : LOM 내부 자료

주 : UNIT HOLDER는 인도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FTWZ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를 의미함

- 따라서 FTWZ를 통해 대량수송 후 소량으로 유통업체에 재배송, 전시회 및 박람회 후 직접 판매, 물류 가공 후 제3국 수출 등 다양한 업종의 진출이 가능함
- FTWZ를 통한 우리 화주 및 물류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
 - 인도시장은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
 - 따라서 진출을 희망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FTWZ 직접투자 또는 FTWZ UNIT HOLDER와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
 - 정부 기관에서 FTWZ에 공간을 확보해 우리 기업에게 제공한다면 물류비 절감 및 시간 단축, 통관절차 간소화 등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

LOM Logistics India PVT. Ltd 임한성 대표

+91-98403-71142, maa@lom-logistics.com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터키 전자상거래 시장, 지난해 38% 성장

-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터키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8년 한해 38% 성장한 65억 달러 규모에 달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에서 5%의 점유율을 차지함
 - 터키 소비자의 1인당 전자상거래 연간 지출 금액은 181달러로 나타남
 - 세계 평균 지출액은 인당 833달러이며, 중국은 인당 858달러, 미국은 1,819달러임
- 일반적으로 터키 소비자들은 의류, 신발, 전자제품, 화장품, 서적, 게임 등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
 -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신발과 의류로서 68%의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그 다음으로는 전자제품(58%), 개인용품 및 화장품(49%), 서적 순임
- 이 외에도 음식 주문을 위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현재 터키에서는 음식배달 주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47%의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배달음식을 주문하고 있으며, 월평균 4회 정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터키 소비자들은 인터넷 서핑에 하루 7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, 온라인 쇼핑의 주요 매체는 스마트폰(75%)과 노트북(52%)인 것으로 나타남
- 터키의 총 8,200만 인구 중 지난해 인터넷을 사용한 인구는 5,200만명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72%에 달하고 있음
 - 이는 세계 평균 57%를 훨씬 웃도는 수치임
 - 지난해 터키에서 인터넷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인구는 총 5,200만명으로 이 인구가 하루 3분 정도 온라인 쇼핑을 즐긴 것으로 나타남

■ 참고자료 : <http://www.hurriyetdailynews.com>, <https://www.thepayers.com/ecommerce/ecommerce-in-turkey-was-worth-eur-5-7-bln-in-2018/779385-25#>, 2019.6.20., 2019.6.24.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일본 DENSO, 신형 리퍼 컨테이너 개발 통해 콜드체인 분야 진출

- 일본의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인 DENSO(덴소)가 자사의 자동차 에어컨 및 온도 제어 기술력을 활용한 신형 냉동(리퍼)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콜드체인 분야 진출
 - 덴소의 신형 리퍼 컨테이너의 명칭은 'futecc(후테크)'
 - 후테크의 특징은 정밀하고 안정된 온도 제어로 혼재 수송에 적합하다는 점임
 - 후테크는 수출입용 수송 용기 외에 옥외 설치 냉동·냉장 창고로도 활용 가능
 - 농산품의 안정적인 출하 및 수출 증대 등 후테크를 통한 콜드체인 활성화가 기대됨
- 후테크의 장점은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농산품 수확 당시의 품질을 장기간 유지하고 컨테이너 내부를 균일하게 냉각할 수 있다는 점임
 - 특히 소량 생산 중심의 고가격 고품질 농산품을 해상 수송할 경우, 단일 품목만으로는 컨테이너 만재가 어려워 다품목 혼재 수송이 불가피함
 - 이 경우, 품목에 따라 적정 온도가 다를 뿐 아니라 현행 일반적인 리퍼 컨테이너는 내부의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어렵다는 현행 문제점이 있음
 - 후테크는 2개의 컴프레서(공기압축기)와 2개의 인버터 방식을 채용해 신선도 유지를 가능하게 했음(온도 설정 가능 범위 : 섭씨 -35℃~30℃)
 - 일반적인 리퍼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바닥에 T레일을 사용하고 있어 상품을 골고루 적재해야 컨테이너 내부가 균일하게 냉각되는 구조이나, 후테크는 덕트(duct) 방식 채용으로 화물의 적재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균일 냉각이 가능함
- 소량 화물 대응, 불균등 형태의 화물 혼재, 정밀하고 균등한 온도 제어 능력 등 후테크가 지닌 여러 장점은 단일 품목으로 만재 수송이 곤란한 농산품 등의 수출 외에도 콜드체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요 충족 가능
 -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야채·과일 상품은 얼기 직전의 섭씨 0도를 지속적으로 균등 유지할 수 있다면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다품목 혼재 수송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임
 - 실제로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출하한 다품목의 농산품을 후테크에 적재하고 시미즈항에서 싱가포르항으로 해상 수송한 결과, 싱가포르 도착 후에도 전량 전품목이 즉시 판매 가능할 정도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, 현지 바이어로부터도 호평 받았음
 - 또한 일본의 콜드체인 관련 생산자 및 도매업자는 상품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후테크를 냉동·냉장 창고로 활용하고 있음
 - 덴소는 후테크를 이용한 농업의 효율화 및 안정화, 부가가치 제고 관련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으며, 향후 후테크를 활용한 푸드체인 영역 진출을 계획 중임



일본 아이치현 카리야시 DENSO에 설치되어 있는 futecc 체험장



자료 : secure.marinavi.com

■ 참고자료 : secure.marinavi.com, www.denso.com, 2019.6.25.

한성일 부연구위원
051-797-4781, han@kmi.re.kr